

도내 소재·부품 기술사업화 촉진

전북테크노파크, 유닉·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혁신센터와 '기술마켓' 공동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는 전북지역 미래전지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마켓을 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주)유닉과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혁신센터와 함께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술마켓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재단) 공모에 선정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23억원 규모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 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술이전 협약식과 기술이전 연계사업 설명회 1:1 기술이전 사업 연계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기술이전 협약식은 미래전지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도내 8개 기관과 기업이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협력해 코팅테크놀로지외 롤투를 부직포 가공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중개 협약식을 진행했다.

기술이전 상담회는 지역 내 공동연구기관(대학, 출연(연)), 2022년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사업 참여기관 등이 참석해 1:1 맞춤형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 도내 주요 대학

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퍼스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도내 주요 연구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했다.

(주)블루비즈 에이퍼워(주) 엠엘아이티(주) (주)제이스에코 레오닉스(유), 우리기술 (주)코모텍, (주)씨이피티, 엑셀레타(주) 등 도내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기술이전 상담과 유관기관 지원 사업 상담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라북도 미래전지 소재·부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기업과 기관들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농협 양재는 신용본부장 함께하는 우수 농협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5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남원농협 양재는 신용사업부장을 전북농협 이달의 함께하는 우수 농협인상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달의 함께하는 우수 농협인상'은 매월 우수직원을 선정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전북농협의 권위 있는 시상제이다.

양재는 본부장은 1986년 남원농협에 입사한 이래 신용사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수익센터 역할 제고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농협 보험 사업에서 우수한 마케팅 역할을 발휘한 결과, 남원농협이 '농협보험 연도대상'에서 최근 3개년 연속 전국 최상위 랭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금년 남원농협 금융자산 135,500억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재는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민 그리고 남원농협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함께하는 농협의 소중한 가치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화산농협이 지난 3일 화산면생활체육공원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100년 농협 구현 새로운 미래로'

화산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재)이 지난 3일 화산면생활체육공원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미래비전선포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원철 농협중앙회 이사(부안농협조합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및 유관 기관장 조합원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축하와 변함없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미래로!' 라는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김중재 조합장은 "지난 50년 동안 변함없이 화산농협과 함께 해준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화산농협이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태풍 '힌남노' 대비... 회의하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4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상에 대비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촌진흥기관과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북농협, 태풍 '힌남노' 복상 따른 비상대비태세 돌입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상에 따른 재해대책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전북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5일 밤부터 6일 오전사이 시간당 50~100mm의 집중호우와 순간최속 30미터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를 요



전북농협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상에 따른 재해대책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북지역 태풍 최근접시간인 6일 6시부터 8시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농업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계통보고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특보 해제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취약지구 현장점검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태풍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 신대인농협, 추석 반찬나눔 행사 가져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김성주)과 행복나눔이 회원들이 지난 2일 관내 독거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나눔 행사를 가졌다.

추석을 맞아 행복나눔이 회원 25명은 복지 사각자리에 놓인 취약계층 70세대에 말 벗 및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지원과 정성 가득한 반찬을 준비해 전달하였다.

김성주 조합장은 "추석과 수확철 바쁘신 와중에도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행복나눔이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내 소외된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농업발전 기여

전북농협, 올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 농·축협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지난 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축협 상임이사과 전무 100여명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 자정 결의대회, 2022년 상반기 경영성과 및 하반기 사업추진방향, 서민중 해외증권부장의 특강, 사고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리 의식 자정 결의대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점점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고객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고객의 신뢰회복과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자정 결의문'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로 윤리 의식 제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 농·축협 전 임직원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하여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

또한, 상반기에 선포한 전북농협의 비전인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 제1의 전북 상호금융'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과제인 △상호금융대상 육성, △임직원 역량 강화,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 △디지털 상호금융 육성을 하반기에도 핵심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민중 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및 ESG 경영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변하는 금융환경, 인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하반기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바이자이의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축협의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민인 고객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